

## 「將軍族」의 表現技巧 分析\*

黃 炫 國\*\*

### 국문초록

陳映眞(1937~ )의 「將軍族」은 1964년에 『現代文學』(第十九期)을 통해 발표된 작품으로 사회적 의의가 매우 깊은 작품이다. 「將軍族」은 발표된 당시에 대만에서 매우 광범위한 반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대만과 중국에서 매우 주목을 받는 작품이다. 1999년 北京人民出版社에서 20세기 우수 문학 도서를 선정하여 『百年百種優秀中國文學圖書』를 출판하였는데 소설집 「將軍族」이 포함되었고, 『亞洲周刊』에서 선정한 20세기 중국소설 백선(「二十世紀中文小說一百強排行榜」)에 15위로 선정되었다. 대만 작가로는 白先勇의 소설집 『臺北人』(7위) 다음으로 선정되었다.

「將軍族」은 작품 속에 나타난 강렬한 의식형태와 강한 비극적인 주제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작가는 강한 비극적인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의식의 흐름 등의 서술기법과 상징, 대비기법을 운영하였다. 작가의 창의적인 표현기교는 인물의 형상을 성공적으로 묘사하고 강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표출하였다. 이것이 「將軍族」의 예술성이다. 서술시점에 있어서 중국 전통 기법인 삼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속에 현대 기법인 인물의 일인칭 시점을 보탠 것으로 이 두 가지의 서술 시점이 서로 결합하거나 삽입하여 운용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또 단편소설의 분량이 짧은 것을 감안하여 상징기법을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표출했으며 대비의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형상을 성공적으로 묘사하고 비극적인 소설 주제를 성공적으로 심화하여 당시 대만사회의 특유한 우울함과 비통한 정서를 잘 반영하였다.

본고는 소설 「將軍族」의 내용을 통하여 작가의 표현기교를 분석하여 그 예술적 성과를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이러한 표현기교를 통하여 돌출시키려하는 비극의식을 탐구하여 「將軍族」의 작품세계의 특징을 한층 더 깊게 이해하고자 한다.

[주제어] 「將軍族」, 陳映眞, 敘述技巧, 象徵技法, 對比, 意識流

### 目 次

- |               |           |
|---------------|-----------|
| I. 序 言        | IV. 對比 技法 |
| II. 敘事 技巧의 運用 | V. 結 語    |
| III. 象徵 技法    |           |

\* 이 연구는 2014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 dkhg@dankook.ac.kr

## I. 序 言

陳映眞(1937~ )의 「將軍族」은 1964년에 『現代文學』(第十九期)을 통해 발표된 작품으로 사회적 의의가 매우 강한 작품이다. 「將軍族」은 발표된 당시에 대만에서 매우 광범위한 반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대만과 중국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작품이다. 1999년 北京人民出版社에서 20세기의 우수 문학 도서를 선정하여 『百年百種優秀中國文學圖書』를 출판하였는데 소설집 「將軍族」이 포함되었고, 『亞洲周刊』에서 선정한 20세기 중국소설 백선(「二十世紀中文小說一百強排行榜」)에 15위로 선정되었다. 대만 작가로는 白先勇의 소설집 『臺北人』(7위) 다음으로 선정되었다.

陳映眞은 白先勇과 함께 중국에서 대단히 주목 받는 작가이다. 徐復觀은 陳映眞을 ‘海峽兩岸第一人’<sup>1)</sup>이라 했다. 이런 평가는 물론 문학적 성취를 두고 한 말은 아니다. 주로 사상적인 심도와 그 실천을 두고 한 말이다. 이처럼 陳映眞의 문학 창작에 있어서 사상은 창작형식의 주체라고도 할 수 있다. 때문에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난 강렬한 의식형태와 엄숙한 주제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sup>2)</sup> 이러한 이유로 현재까지도 陳映眞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그의 前期 작품인 「將軍族」을 주로 꼽는다.<sup>3)</sup>

「將軍族」은 사회적 함의가 강한 작품이다. 「將軍族」은 밑바닥 인생을 사는 남녀 두 주인공의 이야기이다. 남자 주인공 ‘三角臉’은 국민당을 따라 혈혈단신으로 대만에 와서 康樂隊에서 트럼펫을 연주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퇴역 군인이다. 여자 주인공 ‘小瘦丫頭兒’는 대만의 빈민 가정의 딸로 유곽에 팔려갔으나 도망쳐 나와 康樂隊에 들어와 춤을 추거나 어릿광대 역을 맡고 있다. 두 사람은 돌아갈 집이 없거나 집이 있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이다. 서로의 처지를 알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진다. ‘三角臉’은 심지어는 ‘小瘦丫頭兒’에 대해 아버지 같은 심정이 짝트기도 했다. ‘小瘦丫頭兒’가 빛을 탐감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들은 ‘三角臉’은 그날 밤 전 재산인 퇴직금 삼 만원이 든 통장을 그녀의 베개머리 옆에 두고 떠난다. ‘小瘦丫頭兒’는 돈을 갖고도 다시 유곽에 팔려가고 몸을 팔지 않겠다고(“我賣笑, 不賣身”) 고집하다 왼쪽 눈을 잃는다. 온갖 풍파를 겪은 두 사람은 오 년 만에 만난다. 두 사람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순결한 결합을 위해 끝내는 동반 자살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작가는 이렇게 강한 비극적인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의식의 흐름 등의 서술기법과 상징, 대비기법을 운영하였다. 작가의 창의적인 창작기교는 인물의 형상을 성공적으로 묘사하고 강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표출하였다. 이것이 「將軍族」의 예술성이다.

본고는 소설 「將軍族」의 본문을 통하여 작가의 표현기교를 분석하여 그 예술적 성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표현기교를 통하여 표출하려는 비극의식을 탐구하여 「將軍族」의 작품세계의 특징을 한층 더 깊게 이해하고자 한다.

- 1) 徐復觀, 「海峽兩岸第一人」: “……我承認他是『海峽兩岸第一人』的說法。因為他透出了中國絕對多數人是沒有根之人的真實。”(『陳映眞作品集14』臺北: 人間出版社, 1988), 114쪽.
- 2) 김원, 『陳映眞의 「將軍族」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 제12집, 2004, 207쪽 참조.
- 3) 宋冬陽, 「縫合這一道傷口——論陳映眞小說中的分離與結合」: “這個短篇小說已成臺灣現代文學史上的一篇『經典之作』, 幾乎討論陳映眞作品的批評家, 或者研究臺灣小說的學者, 都對「將軍族」特別重視。”(『陳映眞作品集14』, 臺北: 人間出版社, 1988), 141쪽.

## II. 敘事 技巧의 運用

「將軍族」이 광범위한 반향을 일으키고 또 많은 주목을 끄는 좋은 작품으로 평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강한 주제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강한 주제만을 가지고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없다. 「將軍族」에서 陳映眞은 강한 주제를 표출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서술방법을 교묘하고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將軍族」의 서술 방법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소설의 구성이 인물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현실과 과거의 회상이 교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꼭 필요치 않는 서술을 피하고 현재와 과거가 연결되면서 인물들의 감정 표현이 심화될 수 있었다. 소설의 시작은 현실에서 시작하여 세 차례 회상을 하는 방식으로 남녀주인공인 ‘三角臉’과 ‘小瘦丫頭兒’의 비극적인 애정을 효과적으로 그려냈다. 소설은 남녀 주인공의 세 차례의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운명을 전개시켰고 마지막은 두 사람의 情死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소설의 전개 상황을 두 주인공의 대화를 위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화, 어느 달 밝은 밤에 유랑 악단(康樂隊)의 단원인 두 사람은 해변 가 모래사장에서 대화한다. 국민당 군인으로 전역한 ‘三角臉’은 돌아갈 집이 없고 ‘小瘦丫頭兒’는 창녀로 팔려갔지만 도망쳐 악단에 들어와 있어 집이 있어도 돌아가지 못할 처지인 것을 서로가 알면서 외로운 두 사람은 가까워진다.

두 번째 대화, 베니어판 한 장을 가지고 남녀 공간으로 나뉜 숙소에서 베니어판을 사이에 두고 ‘小瘦丫頭兒’가 「綠島小夜曲」을 반복하여 부른다. 곡조가 엉망이지만 갈수록 부드럽게 감정을 담아 불렀다. 그러다 대화가 시작된다. ‘小瘦丫頭兒’은 자기가 창녀로 팔려갔다가 도망쳐 나왔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자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집에서 밭을 팔아야 되고 결국에는 여동생도 팔려갈 것이라고 했다. ‘三角臉’은 그날 밤 퇴직금을 그녀의 베개머리 옆에 두고 떠난다.

세 번째 대화,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은 두 사람은 오 년 만에 만난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걸어가면서 서로의 고초를 얘기하다가 ‘三角臉’가 트럼펫으로 「王者進行曲」을 흥이 나게 불고 ‘小瘦丫頭兒’은 웃으며 지휘봉을 흔들며 걸어간다. 다음날 두 사람은 사탕수수 밭에 똑바로 누운 채 죽어 있었다. 마치 장군처럼.

먼저 서술시점에 관해 살펴보자. 서술시점은 소설을 쓰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要訣이다.<sup>4)</sup> 시점의 적절한 운용은 문자의 風格을 결정하고, 인물의 개성을 결정하며 심지어 어떤 때는 주제의 의의를 결정하기도 한다.<sup>5)</sup> 실제로 서술시점은 소설의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대소설의 기교 운용에 있어서 작품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소설에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해서 꼭 좋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이야기를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달려있다. 작가는 독자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적절한 서술시점의 운용은 독자의 마음속에 더욱 바싹 다가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將軍族」의 서술 시점의 운용은 중국 전통 기법인 삼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기본적인 시점으로 하고 현

4) 白先勇, 『驀然回首』, 臺北: 爾雅出版社, 1978, 77쪽 참조.

5) 위의 책, 128쪽. “觀點的應用非常重要, 因為觀點決定了文字的風格, 決定了人物的個性, 有時甚至決定了主題的意義, ……”

대 기법인 인물의 일인칭 시점을 보탠 것으로 이 두 가지의 서술 시점이 서로 결합하거나 삽입하여 운용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소설 속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하다가 자연스럽게 비록 ‘나’라는 인칭을 쓰는 일인칭 서술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빈번하게 ‘三角臉’의 시점을 이용하여 주인공 일인칭 시점을 통하여 현장감을 더했다. 소설 시작부분에 ‘三角臉’은 ‘高個子’의 슬라이드 트럼펫을 고쳐주고서 시험 삼아 몇 개의 음을 불다가 ‘小瘦丫頭兒’을 발견하였다. 그가 긴 나무의자에 앉아서 그녀를 보는 장면을 보자.

……그는 긴 나무 걸상에 앉았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녀를 못 본지 벌써 5년은 된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한 눈에 알아보았다. 그녀는 햇빛 속에 서있었다. 몸의 무게를 왼쪽 다리에 놓았다. 엉덩이가 왼쪽을 향해 매우 아름다운 만돌린의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여전히 그런 모양으로 서 있으면. 그렇지만 지금 그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다. 여러 해 전에도 그녀는 이런 모양으로 그의 앞에 서있었다.……6)

다시 소설에서 ‘三角臉’의 두 번째 회상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자.

매우 똑똑히 기억한다. 그때 그런 모양으로 서서 그렇게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 그녀에 대해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가 이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마지막엔 저절로 늠름하다는 느낌이 생겨났다. 생각해보니, 그는 여태껏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없었다.……7)

“그녀를 못 본지 벌써 5년은 된 것 같네……”, “……여전히 그런 모양으로 서 있으면.” “매우 똑똑히 기억한다.” 등에서 비록 ‘나’라는 인칭을 쓰지는 않았지만 ‘三角臉’의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중간 중간에 ‘三角臉’의 일인칭 시점을 삽입하였다. 「將軍族」은 기본적으로 삼인칭 전지시점으로 ‘그(他)’와 ‘그녀(伊)’를 사용하여 전체를 서술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술은 ‘三角臉’과 ‘小瘦丫頭兒’가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줄거리의 전개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小瘦丫頭兒’의 오 년을 전후로 하여 그녀의 외모와 정신 상태의 대비, 그리고 ‘三角臉’의 악단에서 생활과 현재의 늙어가는 모습 따위 등을 전지적 시점으로 비교적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소설을 읽어보면 서술의 주체가 일정한 틀에 얽매인 채 그저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독자가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듯한 실제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만을 사용하여서는 현장감이 결여되기 쉽기 때문에 작가는 내적인 서술부분에서 일인칭 시점을 섞어 사용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三角臉’의 회

6) 陳映眞, 『將軍族』, 臺北: 洪範書店有限公司, 2001, 182쪽. “……他坐在一條長木槓上, 心在很異樣地悸動着。沒有看見伊, 已經有五年了罷。但他却能一眼便認出伊來。伊站在陽光裏, 將身子的重量放在左腿上, 讓臀部向左邊畫着十分優美的曼陀玲琴的弧。還是那樣的站法啊。然而如今伊變得很婷婷了。很多年前, 伊也曾這樣地站在他的面前。……”

7) 위의 책, 182쪽. “記得很清楚: 那時對於那樣地站着的並且那樣輕輕地滴淚的伊, 始而惶惑, 繼而憐惜, 終而油然地生了一種老邁的心情。想起來, 他是從未有過這樣的感覺的。……”

상 부분에서 ‘小瘦丫頭兒’의 말을 보자.

“아, 아! 이 달이였군요. 내가 밥을 다 먹고 나니 심상치 않았어요. 알고 보니 달이 커졌어요. 난 또 집 생각이 났어요.”

“나 같은 사람은 집조차도 없어.”

“집이야 있지요. 집이 있기는 있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날)테러가던 그 날, 나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엄마는 방에 숨어서 울었어요. 아주 크게 울었어요. 일부러 내가 들으라고, 나는 끝까지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흥!”

……“그때 내가 떠난 후, 만약 아내가 딸을 가졌다면 아마도 네 나이였을 거야.”<sup>8)</sup>

이러한 서술은 주인공이 ‘나’를 사용하여 서술함으로써 줄거리에 주관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였고 소설 전개에서 많은 서스펜스(suspense)를 설정할 수 있고 독자로 하여금 줄거리의 복잡한 곡절을 느끼게 만들어 주었다.

「將軍族」에서 작가는 전통적인 단선적인 서술양식만으로 줄거리를 전개하지 않았다. 내적인 서술방식을 사용하여 마음속을 탐색하는 언어로써 인물의 마음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게다가 인물의 의식의 흐름으로 줄거리 전개의 계기와 동력으로 삼았다. 전체 전개 상황을 의식의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소설의 처음부분에 ‘三角臉’이 ‘小瘦丫頭兒’를 발견하고 그녀가 햇빛 속에서 “몸의 무게를 왼쪽 다리에 놓았다. 엉덩이가 왼쪽을 향해 매우 아름다운 만돌린의 곡선을 그리고 있는(將身子的重量放在左腿上, 讓臀部向左邊畫着十分優美的曼陀玲琴的弧.)” 모양을 보고는 “여전히 그런 모양으로 서 있으면.”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서있던 그녀를 회상하며 자연스럽게 오 년 전 달밤에 해변 모래사장에서 대화했었던 회상으로 들어간다. 회상 중에 징과 북소리로 인해 현실로 돌아와서 그녀가 지휘봉을 휘두르며 지휘하는 모습을 본다. 그녀의 지휘가 악기 연주와 반 박자 틀린 것을 발견하고는 그녀가 약간 음치였었던 것을 기억해내며(“便發覺了伊的指揮和樂聲相差約有半拍. 他這才記得伊是個輕度的音盲.”), 다시 오 년 전을 회상한다. 숙사에서 합판을 사이에 두고 ‘小瘦丫頭兒’가 반복하여 노래를 부르다 여동생을 위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그는 퇴직금을 그녀의 베개머리 옆에 두고 떠난다. ‘小瘦丫頭兒’의 지휘로 몇 곡의 연주가 끝나자(“幾支曲子吹過去了”) 그는 현실로 돌아왔다. 이때 ‘小瘦丫頭兒’는 ‘三角臉’을 발견하고 두 사람은 오 년 만에 서로 만난다. 세상의 온갖 고초를 다 겪은 두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크게 웃고 즐겁게 행군을 하며 죽음으로 향했다. 소설은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엮는 방법으로 줄거리를 전개해나갔다.

장면 배치에 있어서도 작가는 완전한 줄거리를 추구하는 전통소설과는 달리 스토리의 줄거리를 약화시켰다. 예를 들면 작가는 두 주인공이 오 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 “몇 곡의 연주가 끝났다(幾支曲子吹過去了).”라고 간단히 여덟 글자를 써서 두 주인공이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것을 서술하였다. 작가의 서술 기

8) 앞의 책, 183쪽. “唉, 唉! 這月亮. 我一吃飽飯就不對. 原來月亮大了, 我又想家了.”, “像我罷, 連家都沒有呢.”, “有家. 有家是有家啦, 有什麼用呢?”, “帶走的那一天, 我一滴眼淚也沒有. 我娘躲在房裏哭, 哭得好響, 故意讓我聽到. 我就是一滴眼淚也沒有. 哼!”, “要是那時我走了之後, 老婆有了女兒, 大約也就是你這個年紀罷.”

교가 특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가는 ‘三角臉’이 헤어진 오 년 동안 어떤 고초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도 않았지만 대화중에서 간단한 두 마디의 말로 매우 처참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康樂隊에 있을 때가 살기가 좋았어”

그는 그녀의 손을 꼭 끼고, 다른 한 손으로는 흔들흔들 나팔을 가지고 놀았다. 그가 이어서 말했다.

“떠난 후에 밖에서 지내보고서야 진정으로 사람에게 팔려간 사람의 심정을 알겠더군.”

그들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그는 자신의 실언으로 화난 듯이 느슨해진 얼굴을 쩍그렸다.<sup>9)</sup>

이전 康樂隊에 있을 때도 ‘거의 매일 덜컹거리는 큰 트럭을 타고 가는 곳마다 연주를 했고’,<sup>10)</sup> 밤에는 베니어판 한 장 사이를 두고 남녀 공간으로 나뉜 허술한 숙소에서 잠을 자야 하는 생활을 했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三角臉’이 오 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알 수 있다. 게다가 팔려가 본 적인 있는 ‘小瘦丫頭兒’에게 엉겁결에 ‘진정으로 팔려간 사람의 심정을 알겠더군.’<sup>11)</sup>라고 말한 후에 ‘자신의 실언으로 화난 듯’이라고 서술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三角臉’이 당한 그동안의 고초를 잘 나타내었다. 이렇게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과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이 이 오 년 동안 당한 술한 고생을 암시하여 주인공의 운명적인 비극성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었다. 이러한 서술 기교가 「將軍族」의 예술적 성취를 높였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서술시점의 운용과 의식의 흐름 기법의 유기적 운용은 작품의 제재와 강한 주제의식의 표출에 적절하였고 소설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다.

### Ⅲ. 象徴 技法

「將軍族」의 성공적인 서술 기교에 있어서 상징과 대비의 역할이 적지 않다. 우선 편폭이 짧은 단편소설에서 강한 의미를 표출하려면 상징과 대비의 기법을 운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將軍族」에서는 악곡들과 몇 개의 형상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등장한다. 작가의 고심이 덧보이는 부분이다. 우선 소설에서 현실 부분에서 악곡을 연주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온다. 소설 시작부분에 색소폰으로 일본풍의 「荒城之月」을 연주하고, 악단 여단원들이 박자를 끌며 「馬撒永眠地下(Massa's In The Cold Ground)」를 연주하고 ‘高個子’가 슬라이드 트럼펫으로 역시 박자를 끌며 「遊子吟」을 연주한다. 그리고 소설 결미에 ‘三角臉’이 트럼펫으로 「王者進行曲」을 연주하는 장면이 나온다. 시작부분에 색소폰으로 「荒城之月」을 연주하

9) 앞의 책, 201쪽. “在康樂隊裏的時候，日子還蠻好呢”，他緊緊地挾着伊的手，另一隻手一晃一晃地玩着小喇叭。他接着說：‘走了以後，在外頭兒兒混，我才真正懂得一個賣給人的人的滋味。’他們忽然噤着。他爲自己的失言惱怒地瞥着鬆弛的臉。”

10) 위의 책, 182쪽. “那時他們都在康樂隊裏，幾乎每天都在大卡車的顛簸中到處表演。”

11) 소설 앞부분에서 두 주인공의 대화 중 ‘小瘦丫頭兒’가 “하지만 당신은 절대로 사람이 팔려가는 것이 무슨 심정인지 알지 못해요.(可是你是斷斷不知道：一個人被賣出去，是什麼滋味。)”(앞의 책, 182쪽)라고 하자 ‘三角臉’는 “난 알아(我知道)”라고 대답 한 적이 있었다.

는 것은 소설 전체 내용이 비극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三角臉’이 ‘小瘦丫頭兒’을 발견하고 그녀가 지휘하는 것을 보고 있는 장면에서 악단의 여단원들이 박자를 끌며 연주하는 「馬撒永眠地下」나 ‘高個子’가 슬라이드 트럼펫으로 박자를 끌며 연주한 「遊子吟」은 모두가 두 주인공이 비극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으며 소설이 비극으로 끝날 것임을 상징하고 있다. 더불어 소설의 결미 부분에서 두 주인공이 죽음을 향해 걸어갈 때 ‘三角臉’이 「王者進行曲」을 연주하며 행진한다.

그는 「王子進行曲」을 불기 시작했다. 흥겹게 불었다. 제방 위를 바른 걸음으로 걸었다. 좌우로 흔들면서. 그녀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제모를 되돌려 받아쓰고 은색의 지휘봉을 휘두르며 그의 앞에서 걸어갔다. 같이 바른 걸음으로 걸었다. 젊은 농부와 시골 아이들이 밭에서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들을 향해 환호하고 있었다. 태양이 기울어 질 때, 그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이 기나긴 제방의 그쪽으로 사라졌다.<sup>12)</sup>

이 장면은 전형적인 상징수법을 사용하였다. 트럼펫을 흥이 나게 불고 지휘봉을 휘두르며 큰소리로 웃으면서 걸어가는 즐거운 모습으로 운명적인 슬픔을 효과적으로 배가 시켰다. 소설 제목을 「將軍族」이라고 한 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주인공이 「王者進行曲」속에서 죽음으로 향하였고, 악단의 제복을 입은 두 주검을 농부의 입을 빌려 “마치 두 대장군 같더라!(像兩位大將軍呢!)”라고 하였다. 작가는 사회 밑바닥 계급 사람들에게 왕이나 장군과 같은 존엄을 지킬 수 있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원은 위의 본문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소설의 결말부분에 이르러서는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하찮은 떠돌이 인생과 위엄과 존엄의 장군의 제복을 입은 주검을 재현함으로써 더욱 비극적 위엄의 실재계를 효과적으로 표상하고 있다. 바로 喪家에서 출상하고 있을 때, 남녀주인공도 이 삶의 고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sup>13)</sup>

소설에서 달, 비둘기 등의 형상이 반복하여 여러 차례 나타난다. 「將軍族」의 전체 서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장면을 연속적으로 연출하는 영화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러한 영화에서 밝은 달, 하얀 비둘기, 찬란한 햇빛 등은 자주 나타나는 장면이다. 하지만 반복하여 서술하는 것은 작가의 다른 의도가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특히 비둘기는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비둘기는 성령의 화신으로 영혼의 순결과 생명 평화를 상징하고 있다.<sup>14)</sup> 달은 중국 전통 시가문학에서 團圓을 상징하고 있어서

12) 陳映眞, 앞의 책, 201~202쪽. “……吹得興起, 便在堤上踏着正步, 左右搖晃. 伊大聲地笑着, 取回制帽戴上, 揮舞着銀色的指揮棒, 走在他的前面, 也走着正步. 年輕的農夫和村童們在田野裏向他們招手, 向他們歡呼着. 太陽斜了的時候, 他們的歡樂影子在長長的坡堤的那邊消失了.”

13) 김원, 「陳映眞의 「將軍族」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 12, 2004, 230쪽.

14) 위키백과사전(<https://ko.wikipedia.org/wiki/%EB%B9%84%EB%91%98%EA%B8%B0>) “……노아가 땅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배에서 비둘기를 내보냈고 비둘기는 올리브 가지를 물어와서 땅이 있음을 알려줬다. 마태 복음서 3:16과 누가 복음서 3:22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동안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기독교에서는 성령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비둘기를 써 왔다.”

시가에서 달이 등장하면 가족과 고향을 그리는 주제가 대부분이다. 이런 영향으로 현대의 중국인들도 달과 團圓을 연상하고 있다. 소설에서 이런 형상들은 대부분 주인공의 눈을 통해 자연환경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소설 전체에서 달의 형상은 여덟 번 비둘기는 네 번 햇빛은 세 번 등장한다. 물론 모든 형상이 매번 상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자세히 보면 이런 형상의 서술은 배치와 반복에 있어서 작가의 고심이 보인다. 먼저 비둘기에 관한 서술을 보자. 비둘기에 대한 서술은 모두가 현실 부분에서 나타난다. ‘三角臉’가 ‘小瘦丫頭兒’를 처음 발견하고 그녀를 쳐다보는 장면을 시작으로 그녀가 ‘三角臉’를 발견하고 다가와 만나는 장면까지 얼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나타나는 서술이다. 처음 그녀를 바라보는 부분이다.

그녀는 골똘히 공중에서 타원을 그리는 비둘기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붉은 깃발 하나가 비둘기들을 향하여 흔들며 대고 있었다.<sup>15)</sup>

그 다음은 ‘三角臉’이 오 년 전의 일을 회상하고 현실로 돌아와서 다시 그녀를 보고 그녀의 변한 모습을 서술하다가 비둘기들의 모습을 서술한다.

비둘기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세 개의 지붕 위에 앉아있었다. 비둘기 기르는 그 사람이 아무리 붉은 깃발을 흔들어도 날아오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고개를 기울이고 멍하니 깃발을 보고 있다가 또 날갯짓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대며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sup>16)</sup>

곧 이어서 그녀의 얼굴이 그를 향하였고, 잠시 후 그녀가 다가오고 두 사람은 만난다. 서로 이름을 부르며 반가워할 때 ‘三角臉’은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웃음을 생각한다. 이어지는 서술이다.

별안간 한 바탕 날개 치는 소리가 났다. 비둘기들이 또 공중으로 날아올라 비스듬한 원을 그렸다. 그들은 모두 그 비둘기를 쳐다보며 침묵했다.<sup>17)</sup>

잠시 후에 다시 두 마디 대화를 하고는 다시 침묵을 하면서 비둘기를 쳐다본다.

모두 원을 그리면 그럴수록 점점 멀어지는 비둘기의 원을 쳐다보았다.<sup>18)</sup>

<http://wol.jw.org/ko/wol/d/r8/lp-ko/1200001216#h=4> “성령은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예수께 눈에 보이게 내려온 것은 비둘기가 그 횃대에 다가가면서 날개 치며 내려가는 것과 비슷하였을 것이다.(누 3:22; 마 3:16; 막 1:10; 요 1:32-34) 비둘기의 순진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적절한 상징이었다.—마 10:16.”

15) 陳映真, 앞의 책, 200쪽. “伊正專心地注視着在天空中畫着橢圓的鴿子們。一隻紅旗在向牠們招搖。”

16) 위의 책, 200쪽. “鴿子們停在相對峙的三個屋頂上，恁那個養鴿的怎麼樣搖撼着紅旗，都不起飛了。他們只是斜着頭兒，楞楞地看着旗子，又拍了拍翅膀，而依舊只是依偎着停在那裏。”

17) 위의 책, 201쪽. “忽然一陣振翼之聲響起，鴿子們又飛翔起來了，斜斜地劃着圈子。他們都望着那些鴿子，沉默起來。”

18) 위의 책, 201쪽. “都望着越劃越遠的鴿子們的圈兒。”

네 번의 서술 중에 세 번은 모두 비둘기가 공중에서 원을 그리는 동작을 묘사하였다. 첫 번째 ‘小瘦丫頭’가 공중에서 타원을 그리는 비둘기를 골똘히 주시하는 장면은 ‘三角臉’를 애타게 찾고 있으며 그와의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을 나타냈다. 다음은 비둘기들이 지붕 위에 앉아서 멍하니 깃발을 보고 있다가 가끔 날개 짓을 하는 장면으로 비둘기가 앉아 있을 때의 전형적인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대로 묘사하였다. 하지만 다음 장면과 연결해보면 두 사람이 응시하고 곧 만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만나자 비둘기들은 날아오르고 비스듬한 원을 그렸고 두 사람은 침묵을 한다. 그러다 다시 비둘기들이 원을 그릴수록 멀어져가는 비둘기의 원을 쳐다보고는 잠시 침묵하다 돌이 그 자리를 떠나 걸어가는 것이 비둘기의 마지막 서술이다. 네 차례의 서술이 일반적인 비둘기의 동작을 그대로 묘사하였지만 비둘기를 묘사하는데 있어서 다른 광경 중에서 서로 다른 기색과 자세로 서술하였고, 서술의 배치와 두 사람이 만나는 상황을 순차적으로 교묘하게 접목시켰다. 작자의 독특하고도 교묘한 구상이 덧붙인다.

달은 소설 전체에서 가장 많이 서술된 형상으로 기존의 중국문학에서 團圓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형상이다. 團圓의 상징은 둥근달이다. 달의 묘사는 모두 회상부분에서 나온다. 비교적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서술은 다음과 같다.

“어느 달이 둥근 밤에 원승이는 숲속의 고향집이 생각났다.”<sup>19)</sup>

“아, 아! 이 달이였군. 내가 밥을 먹고 나니 심상치 않았어요. 알고 보니 달이 커졌어요. 난 또 집 생각이 났네요.”<sup>20)</sup>

“그녀는 붉은 빛이 날 정도로 누런 큰 달을 마주하고 천천히 담배를 피웠다.”<sup>21)</sup>

“달이 동녘에 기울어져있었다. 유달리 둥글었다.”<sup>22)</sup>

이런 서술은 달이 분명하게 團圓을 상징하는 것이다. 작가는 같은 형상을 반복하여 사용하여 의미의 표출을 심화하였다. 처음에는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두 사람의 만남을 갈망하는 의미를 대신하였다. 이외에 달빛을 묘사하는 장면이 여러 개 더 있다.

“달빛은 바닷물에 부서져 수많은 반짝이는 생선 비늘이 되었다.”

“달빛이 그녀의 마른 작은 얼굴을 부드럽게 칠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하여 숙소로 걸어갔다. 달빛이 익살맞은 사람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또 두 줄의 고독한 발자국도 비추고 있었다.”

“달은 정말로 아름다웠다. 매우 고요히 길게 뻗은 백사장, 토치카, 그리고 몇 동의 병영들을 그렇게 밝게 비추고 있었다.”<sup>23)</sup>

19) 앞의 책, 202쪽. “有一個月圓的夜, 猴子想起了森林裏的老家。”

20) 위의 책, 203쪽. “唉, 唉! 這月亮。我一吃飽飯就不對。原來月亮大了, 我又想家了。”

21) 위의 책, 203쪽. “伊對着那黃得發紅的大的月亮慢慢地抽起紙菸。”

22) 위의 책, 203쪽. “月在東方斜着, 分外的圓了。”

23) 위의 책, 195쪽. “月亮在海水中碎成許多閃閃的魚鱗。”, “月光很柔和地敷在伊的乾枯的小臉”, “他們於是向招待所走去。月

이상에서 보면 달빛은 매우 아름답지만 소설의 비극적인 주제에 걸맞는 처량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 현실 부분에서의 “그녀는 햇빛 속에 서있다.(伊站在陽光裏)”, “12월의 햇빛이 그녀를 씻고 있었다.(十二月的陽光浴着伊)” 등의 서술과 대조를 이루면서 비극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달은 비극의 두 주인공과 시시각각 함께하며 고독한 그들을 위로하는 형상이 되어 團圓의 의미를 상징하였다. 「將軍族」은 이러한 형상을 통해 작품 주제의 함의가 더욱 심화되는 기법을 잘 운용하였다.

#### IV. 對比 技法

「將軍族」은 ‘양극화’의 서술방식을 자주 사용하였다. 소설 속에서 서로 대비되는 요소가 많다. 과거와 현재, 젊음과 늙음, 슬픔과 기쁨, 승고와 비천 등이 있다. 이런 대비의 요소가 본문에서 함께 표현되어 상호간에 강렬한 예술 張力을 이루어서 편폭이 짧은 단편소설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먼저 두 주인공이 헤어지기 전의 외모와 오 년 후 다시 만났을 때의 외모를 비교해보자. 두 주인공은 오 년을 전후로 외모에 큰 변화가 있었다. 오 년 전의 ‘小瘦丫頭兒’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을 보자.

“마르고 작았다. 달빛 속에서 특히 우습게 보였다.”

“달빛이 부드럽게 그녀의 마른 작은 얼굴을 칠했다. 그녀의 발육이 아주 좋지 않은 몸이 우둔하게 보이게 했다.”

“말라빠져서 해골에다 옷을 입혀 놓은 듯했다.”

“빨간 칠을 한 깨진 탁구공으로 그녀의 유일하게 예쁜 곳인 코를 씌웠다. 비쩍 마른 몸으로 무대에 서서”<sup>24)</sup>

이상에서 보면 그녀는 깡마르고 왜소한 체구에 예쁘지 않는 열네다섯 살의 소녀에 불과했다. 오 년이 지난 후에 ‘三角臉’의 시선으로 보는 그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그녀가 예뻐졌다.”

“그녀의 선글라스를 낀 얼굴은 이전보다 많이 풍만해졌다.”

“그녀는 검고 윤기 있는 머리를 길렀다. 아주 높게 쪽을 지었다. 얼굴에는 살이 많이 올라 그녀의 원래 예쁜 코가 더욱 돋보였다.”<sup>25)</sup>

光照着很滑稽的人影，也照着兩行孤獨的脚印。”，“月亮真是美麗。那樣靜悄悄地照明着長長的沙灘、碉堡、和幾棟營房。”

24) 앞의 책, 183쪽, 183쪽, 184쪽, 186쪽. “又瘦又小，在月光中，尤其的顯得好笑。”，“月光很柔和地敷在伊的乾枯的小臉，使伊的發育得很不好的身體，看來又笨又拙。”，“瘦楞楞地，彷彿一具着衣的骷髏”，“用一個紅漆的破乒乓球，蓋住伊唯一美麗的地方……鼻子，瘦板板的站在台上。”

25) 위의 책, 183쪽, 183쪽, 190쪽. “伊變得很婷婷了。”，“伊的戴着太陽眼鏡的臉，比起往時要豐腴了許多。”，“伊留着一頭兒烏

오 년이 지난 후의 그녀의 모습은 한창 아름다울 나이가 되었고 이전보다 얼굴에 살이 많이 붙었다. 게다가 “그녀는 약간 작은 듯한 제복을 입고 있었다.(伊却穿着一套稍嫌小了一些的制服)”로 봐서 몸도 이전에 비해 살이 많이 찐 모습으로 묘사되었고, ‘高個子’가 “끝내주는 여잔데!(很挺的一個女的呀!)”라고 하는 감탄으로 봐서도 많이 예뻐진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小瘦丫頭兒’는 많이 예뻐진 모습으로 묘사되었으나 대부분은 살이 찼다는 묘사를 통하여 아름다워졌다고 표현하였다. 이점이 독자의 사고를 요하는 비극적인 사실이다. 다음으로 ‘三角臉’의 오 년 전후로 변화된 외모를 보자. 오 년 전의 외모 묘사는 “그는 이미 약간 벗겨지기 시작한 그의 머리를 만졌다.(他摸了摸他的已經開始有些兒發禿的頭兒)”라고만 묘사하였다. 그리고 변화된 외모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는 자기가 과연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느꼈다. 낡은 북이나 여기 저기 때운 구리나팔처럼, 추하기도 하고 또 애처로웠다.”

“이렇게 살짝 웃는 얼굴이라 해도 온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

“그는 태반이나 벗겨진 뽀족한 머리를 만지다 굵으며 웃기 시작했다.”<sup>26)</sup>

오 년 전의 외모묘사는 “……약간 벗겨지기 시작한 그의 머리”가 지금은 “태반이나 벗겨진 뽀족한 머리”라고 하여 오 년 사이에 머리가 많이 빠진 것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三角臉’의 느낌으로 “추하기도 하고 또 애처로웠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작가는 ‘三角臉’의 오 년 전후의 외모변화에 초점을 두지 않고 ‘小瘦丫頭兒’의 변화된 외모와 현재 ‘三角臉’의 외모와의 대비에 초점을 두었다.

“그는 생각했다. ‘하나는 성장하고, 하나는 시드는구나. 겨우 5년 전후의 일에 불과한데!’

“사 오 년 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나 한 명은 해가 뜨고, 한 명은 해가 지는구나!”<sup>27)</sup>

외모의 묘사는 대부분 ‘三角臉’의 시점을 사용하였다. ‘三角臉’의 눈에 ‘小瘦丫頭兒’는 성숙하고 풍만한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했고 자기는 늙고 쇠퇴해가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작가는 이러한 대비 묘사를 통해 桑田碧海의 처량한 감정을 표출했지만 그보다도 ‘三角臉’이 康樂隊를 떠난 오 년 동안 어떠한 비참한 생활을 하였는지를 효과적으로 서술하여 전체 작품에서 비극적인 색채를 더하였다. 더욱 비극적인 설정은 과거와 현재의 대비 중 크나큰 변화를 독자에게 보여주었지만 두 사람의 비극적인 운명은 근본적으로 바뀌지를 았았다는 점이 전체 소설에서 비극적인 주제를 심화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將軍族」에서 작가는 노련하게 대비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대비는 이 소설 속에서 그저 간단한 표현 수법

油油的頭兒髮，高高地梳着一個小髻。臉上多長了肉，把伊的本來便很好的鼻子，襯托得尤其的精神了。”

26) 앞의 책, 184쪽, 190쪽, 191쪽. “他覺得自己果然已在蒼老着，像舊了的鼓，綴綴補補了的銅號那樣，又醜陋、又淒涼。”，“但即便是這樣輕的笑臉，都繃起滿臉的縐紋來。”，“他摸了摸禿了大半的，尖尖的頭兒，抓着，便笑了起來。”

27) 위의 책, 198쪽, 200쪽. “他想着：一個生長，一個枯萎，才不過是五年先後的事！”，“才不過四、五年。可是一個日出，一個日落呀！”

이 아니고 작가의 창의적인 사고방식이 문학창작에서 구현된 것이다. 대비는 소설 속의 주인공인 ‘三角臉’과 ‘小瘦丫頭兒’ 등의 인물형상을 묘사하고, 소설의 주제를 심화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인물 자신의 상황 대비는 소설 속의 인물 마음속의 각종 모순을 묘사한다. 그들의 사회생활과 사상 감정은 매우 복잡하다. 때문에 인물 자신의 모순과 대립을 비교하여 인물의 개성과 특징을 더욱 돌출시킬 수 있고 또 형상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작가는 「將軍族」에서 여러 차례 이런 대비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三角臉’과 ‘小瘦丫頭兒’의 인물을 형상화하여 작품의 주제를 심화시켰다. ‘三角臉’의 인생태도에 관하여 살펴보자. 작가가 ‘三角臉’을 형상화할 때 먼저 康樂隊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서술하였다. ‘三角臉’은 康樂隊의 트럼펫을 담당하는 악사이다. 여자 단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주 마적 등의 애기를 만들어 해주기도 하고 다른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계집질과 도박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달밤에 ‘小瘦丫頭兒’와 해변 모래사장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三角臉’의 인생태도가 변하였다. “그 순간부터야 그의 마음은 나이가 든 사람의 마음으로 바뀌었다.”<sup>28)</sup> 그는 어른의 입장에서 ‘小瘦丫頭兒’를 대했고 마치 아버지 같은 느낌이 생겼다.<sup>29)</sup>

그리고 ‘三角臉’은 중대한 선택을 한다. ‘小瘦丫頭兒’가 유곽에 팔렸다가 도망쳐 나왔다는 것을 알고 또 그녀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퇴직금 삼 만원이 든 통장을 몰래 ‘小瘦丫頭兒’의 베개머리 옆에 두고 떠난다. 그의 결정은 매우 감동적이지만 그의 심정은 매우 복잡했다.

“길을 가면서 그는 절대로 그 퇴직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왜 흐르는 눈물을 그칠 수 없는지 알 수 없었다.”<sup>30)</sup>

그 후 그는 매우 곤궁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小瘦丫頭兒’를 만난다. 작가는 ‘三角臉’의 인생태도의 변화를 대비의 기법으로 선명하게 드러내어 주인공의 인물형상을 성공적으로 묘사하였다.

「將軍族」에서 작가는 노련하게 대비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대비는 이 소설 속에서 그저 간단한 표현수법이 아니고 작가의 창의적인 사고방식이 문학창작에서 구현된 것이다. 대비는 소설 속의 주인공인 ‘三角臉’과 ‘小瘦丫頭兒’ 등의 인물형상을 성공적으로 묘사하고, 소설의 주제를 심화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 V. 結 語

「將軍族」은 대만현대문학사에 있어서 한 편의 ‘經典之作’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작품 속에 나타난 강렬한

28) 앞의 책, 188쪽. “從那個霎時起, 他的心才改變成爲一個有了年紀的人的心了。”

29) 위의 책, 188쪽. “만약 그때 내가 떠나고 나서 마누라가 딸을 가졌다면 아마도 네 나이포래 일꺼야(要是那時我走了之後, 老婆有了女兒, 大約也就是你這個年紀罷.)”

30) 위의 책, 199쪽. “一路上, 他明明知道絕不是心疼着那些退伍金的, 却不知道爲什麼止不住地流着眼淚。”

의식형태와 진지한 주제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陳映眞 작품을 연구하는 비평가나, 陳映眞의 소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이 작품을 특별히 중시하고 있다.<sup>31)</sup> 陳映眞은 「將軍族」에서 강한 사회적 의식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하여 서술방법을 창의적으로 잘 운용하였다. 표현기교에서 출중한 성과를 거둔 白先勇은 표현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물론 내용이 기교를 결정하지만 기교도 플롯(plot)의 성패를 결정한다. 플롯의 성패는 그 첫째가 가장 효과적인 기교로 그 주제를 표현하였는가에 달려있다.”<sup>32)</sup> ……“소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방식”<sup>33)</sup>이며 작품이 좋고 나쁜가는 ‘표현기교’에 달려있다.

이처럼 「將軍族」은 표현기교에 있어서 매우 성공한 작품이다. 서술시점에 있어서 중국 전통 기법인 삼인칭 진지적 작가 시점 속에 현대 기법인 인물의 일인칭 시점을 보탠 것으로 이 두 가지의 서술 시점이 서로 결합하거나 삽입하여 운용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또 단편소설의 편폭이 짧은 것을 감안하여 상징기법을 사용하여 강한 주제 의식을 잘 표출했으며 대비의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형상을 성공적으로 묘사하고 비극적인 소설 주제를 성공적으로 심화하여 당시 대만사회의 특유한 우울함과 비통한 정서를 잘 표출하였다. 「將軍族」이 발표 된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은 것은 작가의 뛰어난 표현기법의 운용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작가는 소설 속에서 등장인물들에게 정식 이름을 부여하지 않았다.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별명이나 생김 모습으로 命名하였다. 혹자는 이것을 남녀주인공이 비천한 사람들이라 이름마저 없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지만 등장하는 인물이 모두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작가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보인다. 「將軍族」이 당시 사회의 특유한 우울함과 비통한 정서를 표출한 것이라면 이러한 모든 것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 것이라 하겠다.

### 〈參考文獻〉

- 陳映眞, 『將軍族』, 臺北: 洪範書店有限公司, 2001.  
 陳映眞, 『陳映眞作品集』 8卷, 臺北: 人間出版社, 1988.  
 陳映眞, 『陳映眞作品集』 9卷, 臺北: 人間出版社, 1988.

31) 宋冬陽, 「縫合這一道傷口——論陳映眞小說中的分離與結合」: “這個短篇小說已成臺灣現代文學史上的一篇『經典之作』, 幾乎討論陳映眞作品的批評家, 或者研究臺灣小說的學者, 都對「將軍族」特別重視。”(『陳映眞作品集14』, 臺北: 人間出版社, 1988), 141쪽.

32) 白先勇, 『驀然回首』, 臺北: 爾雅出版社, 1978, 139쪽. “當然內容決定技巧, 但是技巧決定故事的成敗. 故事的成敗第一要看技巧, 是不是以最有效的技巧表現他的主題.”

33) 위의 책, 122쪽 참조.

- 陳映眞, 『陳映眞作品集』 14卷, 臺北: 人間出版社, 1988.
- 陳映眞, 『陳映眞作品集』 15卷, 臺北: 人間出版社, 1988.
- 古繼堂, 『臺灣文學發展史』, 臺北: 文史哲出版社印行, 1996.
- 古繼堂, 『臺灣文學發展史』, 臺北: 文史哲出版社印行, 1996.
- 白先勇, 『驀然回首』, 臺北: 爾雅出版社, 1978.
- 김원, 「陳映眞의 「將軍族」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 12, 2004.
- 黎湘萍, 「臺灣的憂鬱(中國, 生活, 讀書)(博士論文), 新知三聯書店, 1994.
- 管永仲, 「陳映眞小說主題研究」(碩士論文), 臺灣: 華梵東方人文思想研究所, 1997.
- 劉依潔, 「「人間」雜誌研究」(碩士論文), 臺灣: 東吳大學中文研究所, 1999.
- 朱玉如, 「陳映眞文學作品思想探討」(碩士論文), 臺灣: 文化大學中文研究所, 2000.
- 劉依潔, 「陳映眞在「人間」雜誌中所表現的媒體觀點與實踐方式」, 『東吳中文研究集刊』, 2000.
- 周昆, 「維納斯的回聲—試析陳映眞小說中的無意識」, 『聯合文學』, 1995.6.
- 劉依潔, 「從「人間」雜誌及其創始歷程探陳映眞的人文理念」, 『中國現代文學理論』, 2000.6.
- 黃裳裳, 「意趣神色—臺灣小說「將軍族」審美賞析」, 『阜陽師院學報』 第1期, 1985.

\* 이 논문은 2015년 11월 27일에 투고되어,  
 2015년 12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1월 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1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 中文提要 |

## Analysis of Writing Technique in *Jiangjunzu* (將軍族) (「將軍族」的表現技巧分析)

黃 炫 國\*

短篇小說「將軍族」發表於1964年「現代文學」(第十九期)。是臺灣作家陳映真的早期代表作品之一。

這篇小說通過臺灣一對小人物由隔閡到真誠相愛，因相愛而從容赴死的殉情故事，揭示了小人物悲慘的生活處境和命運，對黑暗、醜陋、不公的現世表達抗議，贊美了小人物高貴的品行和純真的情感。

小說敘述了一個大陸去臺灣的退伍老兵與一個臺灣本省女孩的爱情悲劇。在小說中，作者并未按照傳統的線性敘事模式推動故事情節的發展，而故事的情節隨着人物的意識流動，現實與回憶交叉切入，小說具有明顯的跳躍性。外省人“三角臉”在臺灣的“滄桑傳奇”，本省人“小瘦丫頭”的不幸經歷，不是隨着人物意識的流動而展示給讀者，就是通過人物的對話予以展示。這樣既避免了敘述人不必要的交代，又在今昔聯系中增強了人物感情的濃度和歷史的滄桑感。

「將軍族」象征手法的運用也是魅力所在。如樂器和樂曲在小說中的象征，小說一開始就寫了出殯的日子里薩克斯吹奏的「荒城之月」，就暗示了小說是一個具有悲劇色彩的故事。無論是女主人公吹奏的「馬撒永眠地下」，還是男主人公用管樂器吹奏的「游子吟」，都象征着故事主人公的各自悲劇命運和整個故事的結局。小說的最後，當兩個主人公沿着坡堤向甘蔗林深處走去時，男主人公吹起了「王者進行曲」，“吹得興起，便在他前面，也走着正步。年輕的農夫和村童們在田野裏向他們招手，向他們歡呼着。”這是典型的用象征手法以樂寫哀，倍增其哀。小說以「將軍族」為題，也是有着象征意義的，作者讓主人公在「王者進行曲」中自殺身亡，并通過農民的口說出兩個人死後像“將軍”似的，王者和將軍正寄寓着作者對下層人的尊嚴的期望與呼喚。

除運用了時空交錯、象征等藝術手法外，還嫺熟地運用了精彩的對比藝術。對比在這篇小說中不只是一種簡單的表現手法，而是陳映真先生極具匠心的思維方式在文學創作中的體現。它對刻畫小說中的男女主人公“三角臉”“小瘦丫頭”等人物形象、深化小說的主題起到了十分重要的作用。

【關鍵詞】「將軍族」，陳映真，敘述技巧，象徵技法，對比，意識流，

\* 檀國大學校 教授

---

**Abstract**
**An Analysis of Writing Techniques in *Jiangjunzu* (「將軍族」)**

Hwang, Hyunguk\*

Chen Yingzhen(陳映真: 1937~)'s *Jiangjunzu*(「將軍族」) was presented in the 19<sup>th</sup> volume of *Xiandaiwenxue*(『現代文學』) in 1964 and has a very deep social meaning. When *Jiangjunzu* was presented, the novel broadly impacted Taiwan, and even till now attracts much attention in Taiwan and China. When Beijing Renmin Press selected best literary books of 20<sup>th</sup> century and published *Bainian Baizhong Youxiu Wenxue Tushu*(『百年百種優秀中國文學圖書』) in 1999, *Jiangjunzu* was one of the selections; and in *Yazhouzhoukan*(『亞洲周刊』)'s 'the 100 Best 20<sup>th</sup> Century Chinese Novels(二十世紀中文小說一百強排行榜)' *Jiangjunzu* ranked the 15<sup>th</sup>, and it was the second highest among Taiwanese writers behind Bai Shenyong's novel collection *Taibeiren*(『臺北人』) which ranked the 7<sup>th</sup>.

*Jiangjunzu*, for its exquisite perspective and fiercely tragic theme, attracted much attention. The author applied narrative techniques such as the stream of consciousness, symbolic techniques, and contrasts in order to express the fiercely tragic theme effectively. The author's creative expressive techniques successfully described characters' figures and effectively expressed the strong theme. These are the artistic achievement of *Jiangjunzu*. Regarding its narrative viewpoint, the author applied the traditional Chinese third person omniscient viewpoint and added the modern first person viewpoint onto it, so that these two viewpoints were jointed and mixed. Considering that the piece is a short story, he effectively expressed the theme through symbolic techniques, successfully described characters' figures with contrasts, and deepened the story's tragic theme; so he skillfully reflected the gloom and the bitterness of Taiwanese society of the time.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catch out the artistic achievement of *Jiangjunzu* by analyzing the author's expressive techniques in the contents of the novel. Also, by examining the tragic consciousness projected through such expressive techniques,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Jiangjunzu* more deeply.

**[Key Words]** *Jiangjunzu*, Chen Yingzhen, narrative technique, symbolic technique, contrast, the stream of consciousness

---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